시장 바뀌기 전 문진위원 13명 서둘러 선임

광주 문진위원장 연임설 '시끌'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광주문진위) 위원장과 제3기 문진위원(임기 3년)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7일 신임 문진위원을 위촉하고, 31일 신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문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계에서는 현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문화정책을 이끌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신임 시장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가 특정인을 연임시키기 위해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광주시청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건탁 위원장의 뒤를 이을 3기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6·27일 3기 문진위원 가운데 위촉직 13명에게 전화로 위촉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문진위 정관 7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대표, 학자, 언론인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신임 문진위원은 박규상(연극인), 이영애(전 광주시립무용단장), 김유미(현 광주시립무용단장), 오명규(시인), 김종(시인), 성애순(국악인·전남대 교수), 오건탁(현 광주문화예술위원장), 강창원(광주사진협회 감사), 최규완(광주연예협회 부회장), 황병하(조선대 교수), 진원장(서양화가·조선대 교수), 임관표(전 광주음악협회장), 송영수(광주은행 제2영업본부장)씨 등 위촉직 13명과 당연직인 송귀근 광주시행정부시장, 문봉주 문화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이다.

광주시는 위원들의 경우 문화예술과가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광주시장이 낙점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계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장이 서둘러 제3기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나서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0년 사업계획이 다 짜여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위원회 구성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정인을 연임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10여일 전부터 문화계 일부에서는 현 위원장의 연임설이 흘러 나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13명의 위촉직 가운데 오건탁 현 위원장만 유일하게 재임되는 점이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뒷바침 하듯 현 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일부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원장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3기 문진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전·현직 시립무용단장이 모두 위원으로 위촉되고, 지역 문화 정책을 견인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책 전문가가 단 한명에 그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민예총 계열 예술인들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문진위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에도 단순한 기금 배부 창구에 머물고 있고 문예진흥기금 배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문화예술기금이 47억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할 뿐 문진위가 자체 기금을 확보한 것은 전무하다.

오 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사업규모를 50억원으로 늘리고 문화교육센터를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어 위원회 발전을 위해 재임을 원하고 있다 "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일할 수 있게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지역 문화계를 이끌 문진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임 시장의 문화예술 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꾸려져야 하는데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시장이 조직을 서두르는 것은 넌센스"라며 "신임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신임 시장에게 넘기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강운씨가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雲 좋다"

'구름 화가' 강운 6월11일까지 서울 BEACON 갤러리서 개인전

'구름화가' 강운(46)이 4년만에 새바람을 몰고 돌아왔다.

강씨는 오는 6월11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EACON 갤러리에서 '순수 형태-바람, 놀다' 연작을 중심으로 '구름, 바람, 꽃 그리고 순수'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개인전으론 2006년 서울 EBS 스페이스에서의 '천의표정' 이후 4년만이다.

오랫만에 얼굴을 내민 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유채를 사용하지 않고 캔버스 위에 화선지를 오려 붙여 변신을 시도했다. 물감 대신 화선지를, 붓 대신 가위와 칼을 들었다. 갖가지 구름을 형상화한 화폭에는 화선지의 질감 때문인지 한결 명상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이 묻어난다.

강씨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인 것 같다"며 "충분한 사색의 결과인 만큼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있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감 대신 화선지 붙여 자유롭고 명상적 느낌 바람·꽃·잎새도 등장

그가 돌연 화선지라는 새로운 재료를 통해 순수조형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순전히 자연과 마주하면서 익힌 사색의 결과물이다.

강씨는 "나의 작업은 빛과 소리를 부분적으로 투과시키는 화선지의 특성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태어나게 한다"며 "캔버스 위에 화선지의 겹침에서 우러나오는 백색은 또 하나의 무한공간이자 여백"이라고 밝혔다.

특히 "얇은 반투명 화선지를 배접하는 과정에서 명상적인 공간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인위성과 자연성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작품에 나타난 특징은 한 화폭에 구름뿐만 아니라 바람이며 꽃, 잎새, 나뭇가지 등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재의 다양성과 영역 확대를 보여준다.

그는 "여백 위에 오랜 기간 동안 피고 졌지만 보지 못했던 작고 아름다운 야생화를 틈틈이 채집하여 공중에 낙화시키거나, 비우고 놓고, 비워낸다"며 "거기에서는 내가 만드는 부분을 한정하고 만들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침투하기도 하고 거절도 하는 다이내믹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인 강씨는 10여차례의 개인전, 2000 광주비엔날레 人+間전에 참가했으며 일본과 체코 등 세계무대에 진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한국현대미술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메세나운동 -'예술과 通하다'

광주미협 60여명 참가 6월2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신록의 아름다운 계절, 광주에서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미술협회(회장 정순이)는 내달 2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지하철역 메트로갤러리에서 지역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메세나운동프로젝트Ⅲ -예술과 通하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삶을 비추는 그림' 전의 연장으로 침체된 지역미술계의 활성화와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일반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시회에는 강동권·문형선·송필용·문재평·박정준·정예금·조근호·진원장·한부철·홍동의씨 등 60여명의 회원이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조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출품된 작품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62-222-805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순이 작 '시간으로의 여행'

광주무지카트리오 정기연주회

29일 금호아트홀

플루트 김연주

피아노 범영숙

첼로 김유정

광주무지카 트리오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플루티스트 김연주(초당대 교수), 피아니스트 범영숙(전남대 겸임교수), 첼리스트 김유정(광주여성첼버 앙상블 단장) 등 지역의 중견 연주자들로 구성된 광주무지카 트리오는 1993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텔레만의 '트리오 소나타', 모차르트의 '트리오 K548' 등을 들려주며 안재범(광주대 겸임교수)씨가 작곡한 '플루트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파헬벨'을 선사한다.

특별 게스트로 정애련(전남대) 교수가 출연,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Over the rainbow'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